

# India Mahdavi

인디아 마다비

Color ●  
Material  
Finish



1



3



인디아 마다비

**‘컬러의 제왕’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닌다.**  
‘왕’이라고 불러주시 영광이다.(웃음) 어떻게 컬러와 친해지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솔직히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계기는 없다. 다만 늘 삶에 색이 가까이 있었고, 어울리는 두 가지 색을 함께 사용하는 쪽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컬러를 결정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는지?**  
계산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직관적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공간을 구성할 때는 그 공간의 맥락을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은 색을 연관시킨다. 예를 들어 스케치 인테리어에서 핑크를 고른 이유는 벽에 걸리는 영국 아티스트 데이비드 슈리글리 David Shrigley의 작품을 비롯한 예술품과 조화를 이루는 색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스케치의 리뉴얼에 노란색을 선택한 이유도 아프리카 출신 아티스트 잉카 쇼니바레 Yinka Shonibare 작품의 따뜻함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어떤 소재와 함께 사용하느냐에 따라 색의 느낌도 달라진다. 다양한 색 외에 소재의 믹스매치 또한 당신의 작업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컬러에 따른 소재 선택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소재에 따라 컬러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결정한다. 나옌겐 소재 또한 컬러이며, 질감 또한 컬러다. 가치를 가진 모든 사물에는 색이 존재한다.

런던 스케치의 핑크룸은 당신의 이름을 전 세계로 알리게 해준 프로젝트다. 그래서 이번 리뉴얼에서 색상을 전면 교체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 같다.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컬러만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당시는 소셜 미디어 붐이 일기 시작한 시기였고, 전체가 핑크색으로 꽉 찬 공간은 매우 획기적이었다. 이번에는 획기적인 것을 넘어 우아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잉카 쇼니바레 작품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다. 지나치게 강하지 않으면서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실내 디자인을 위해 아프리카 다카르에 기반을 둔 섬유 디자이너 아이사 디온 Aissa Dione에게 다양한 노란색 음영의 직물을 의뢰해 의자에 쓰웠다. 가나의 밀짚 장인들과 협업해 가방을 만드는 프랑스 디자이너 이네스 브레상 Inès Bressand에게는 램프 셰이드를 의뢰했고. 이렇게 여러 분야에 속한 여성 크리에이터에 의해 깊이 있는 텍스처의 노란색을 이 공간에 담을 수 있었다. 스케치 직원들이 이 공간을 옐로룸으로 부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따뜻함(Warmth)’이라 부르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모든 컬러가 내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한 친구만 좋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웃음) 그렇지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색 조합은 있다. 그중 하나가 검정과 노랑의 조합으로 개인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걸 꺼린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둘을 해변에서 만나면 환상적일 정도로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색에 대해선 어떤 규칙도 만들면 안 된다. 그저 가까이 두고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 색이다. 글 양윤정 통신원 담당 박슬기 기자 인물 사진 ©Sabine Mirlesse

‘인디아 마다비’라는 이름은 모르더라도 핑크색 방에 같은 색의 둥근 암체어로 가득한 런던의 레스토랑 사진은 한 번쯤 보았을 것이다. 2014년 런던에 오픈한 레스토랑 스케치의 ‘핑크룸’은 핑크가 리테일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후 인디아 마다비는 프랑스 디저트 브랜드 라뒤레 Ladurée의 도쿄, 제네바, LA 매장을 통해 다시 한번 과감한 컬러 매치를 보여주었다. 특히 제네바 매장에서는 일반적인 디저트 매장에 잘 쓰지 않는 어두운 녹색을 과감히 사용하기도 했다. 마카롱의 파스텔 톤만 허용하는 라뒤레 매장에 어두운 녹색을 적용하는 건 브랜드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터. 하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보이는 금색 포인트와 둥근 형태의 의자, 화이트 테이블과 작지만 장식성 강한 세라믹 데코, 빛이 들어오는 둥근 창문의 조화는 방문객에게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처럼 대담한 컬러 선택과

영리하게 공간에 적용하는 테크닉 덕분에 인디아 마다비는 ‘컬러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테헤란에서 태어나 미국, 독일을 거쳐 남프랑스로 이주한 성장 배경을 가진 인디아 마다비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만큼 열린 사고를 가진 디자이너다. 프랑스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파슨스, 쿠퍼 유니언, 스킵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제품과 그래픽, 가구 디자인을 모두 섭렵했다. 화려한 색 덕분에 ‘인스타그램러블 디자이너’로 불리기도 하지만 그의 디자인은 절대 가볍지 않다.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저력과 하이엔드 디자인에 친근함을 겸비하는 경쾌함은 인디아 마다비 디자인의 비밀 병기. 최근 작업한 페라리의 레스토랑 카발리노 Cavallino 나 런던 스케치의 리뉴얼 프로젝트는 컬러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페라리의 브랜드 컬러인 레드를 다양한 소재와 톤으로 다채롭게 활용했 뿐 아니라 스케치의 경우 공간을 장악하는 것이 아닌 우아하게

풀어내는 톤을 선택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비대면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공간에 따뜻함을 더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녀의 통찰이 드러난 것이다. 따뜻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소재와 컬러에 대한 많은 실험과 리서치가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 중동을 잇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가 전 세계의 다양한 친환경 재료와 장인을 발굴하고 협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 또한 디자인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축적한 다양한 활동은 인디아 마다비가 구축한 색채 세계의 지경을 넓히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2



4



5